

여성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환경설계

A Study on the Effects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Focusing on crime targeted to females

이 은 영

LEE EUN-YOUNG

요 약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나날이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요 강력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삼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4대 강력범죄 중 살인, 강간의 경우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및 몰카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경우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CPTED를 활용하여 사회적 안전 확보 및 효과적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1. 서 론

하루라도 범죄가 보도되지 않는 날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스토킹부터 끊임없는 성범죄까지 일상에서 범죄보도가 무더질 정도의 범죄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에 근대 범죄학이 발전하면서부터 범죄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근 10년 간 범죄학 및 피해자에 대한 연구 분야는 큰 발전을 이루게 되어, 범죄자의 행동패턴 및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날로 증가하고, 그 방법 역시 지능화 되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강력범죄 10건 중 9건의 피해자는 여성이며, 범죄피해 장소 역시 집근처, 학교 근처 등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CPTED에 대하여 알아보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효과적인 환경설계의 사례를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도록 한다.

2. 본 론

2.1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최근 동향

우리나라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을 통해 보면 강력흉악범죄의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을 89%로 전체 강력범죄의 전체에 가까운 피해자가 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UN 산하기구인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각국의 살인사건 피해자에 대해 성별로 분류를 해두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살인사건 피해자 중 여성의 비율은 53.0%로, 미국 22%, 중국 22%, 독일 47%, 프랑스 38%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여성 피해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한 군데도 없으며, 심지어 여성 인권이 낮다고 평가되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성 비율이 30%를 채 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폭력과 몰카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심각성을 띄고 있어 경찰은 이번 년 7월부터 '여성폭력 근절 특별추진기간'을 정하고 100일 동안 전국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데이트폭력 검거인원은 지난해 총 8367명으로 전년 대비 8.8%(675명)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6월 현재까지 45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89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데이트폭력은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초기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어 사건 초기 개입의 원칙을 두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79개 경찰관서 내 '성범죄 전담팀'이 구성되고,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해 피서지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몰카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범죄 외에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리적 예방방법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2.2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CPTED 활용방안

기존의 CPTED는 단순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이 결합된 응용분야였다. 그래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의 환경요인이나 주민들이 불안할 느낄만한 요소들을 분석해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기법인 것이다. 이에 지자체 별로 다양한 아이디어 및 활용을 통해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율 감소를 갖고 왔다.

하지만 이러한 1차적 CPTED 뿐만 아니라 IOT기술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여성 대상 범죄예방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 안심 특별시 2.0 대책'을 기반으로 스마트기술과 CPTED가 결합하여 24시 스마트윈드스톱 안심망인 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방안이다. 강도나 강간 등 위협에 처한 여성이 자치구의 폐쇄회로TV관제센터와 연결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앱서비스를 개발, 보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앱은 여성의 심야 귀갓길 안전을 돕고, 스토킹 및 강도 등 안전에 위협을 느낀 여성이 실행을 하면 1차로 통합관제센터에 위치가 표시돼 담당자들이 인근 CCTV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실제 긴급한 범죄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 특정 기능을 실행시 현장 동영상이 촬영돼 인근 CCTV가 찍은 이용자의 영상, 앱 사용자의 사진, 연락처 등 정보가 자동 송출되어 관제센터 및 경찰에 제공해 출동을 요청하여 범죄의 조기개입 및 증거물 확보, 여성피해자를 보호 하는 등의 다양한 장점이 나타날 수 있을 꺼라 사료된다.

두 번째로 올해 7월 '몰래카메라 안심점검단'이 출범되어 전문 장비를 통해 '몰카Free Zone' 구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통해 지하철역,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등의 몰카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안심지역 설정을 통해 기존의 갖고 있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화장실 센서 전등 설치 및 여성안심택배함 등은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또 다른 범죄환경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행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곳곳에 LED프로젝터설치 및 비상벨, 안심존 등 시설을 보안하고, 특히 LED를 활용한 커넥트 라이트(Connect Lite) 기술을 시범 설치하여 새로운 환경설계를 통한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안을 기대해 보도록 한다.

3.결 론

우리 사회는 여성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가해자가 남편, 애인 등 주변 가까이 지내는 사람부터 불특정인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을 손쉽게 범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근본적인 정책 및 예방 안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충분히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개선의 경우 우리 사회가 시급히 생각해 봐야할 문제 이며, 그러한 대책방안으로 다양한 기술과 결합된 CPTED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환경설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는 기존의 1차적인 CCTV설치 및 조명개선 등의 단순한 범죄예방이 아닌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융복합적인 CPTED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